나무에 달린 채로 사과 당도 측정

농진청, 근적외선으로 수확 전 확인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근적외선(NIR)으로 사과 당도를 빠르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일 당도는 과일이 잘 익었는지를 판정하는 생육 품질의 중요한 지표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과 당도가 기준치에 알맞게 도달했는지를 관찰해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과를 딴 뒤에야 당도를 측정할 수 있어 당도에 따라 수확기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사과 생육 후기부터 수확기까지 나무에 열매가 달린 상태로 당도를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사과 '후지' 열매의 당도를 이루는 고형분 성분 함량에 따라 당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식으로 만들었다. 이 측정값을 근적외선 기기에 적용한 결과, 생육 후기부터 나무에 달린 사과의 당 함량을 0.9수준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번 기술은 휴대와 조작이 간편한 근적외선 기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정밀하게 당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올 하반기, 기술을 접목한 근적외선 기기를 산업체와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화면을 통해 농가에서 사과 당도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적용 대상 품목을 '후지'에서 다른 품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품종 고유의 당도 기준과 숙기(익는 시기)에 맞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축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새로 개선된 사과 과실 당도 측정기술을 활용한다면 나무 생육 관찰과 빅데이터 수집으로 과수원 디지털 농업 연구와의 접목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 재배 농업인 박성민 씨(전남 장성)는 "농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과실 품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연금수급자 보호 '맞손'

국민연금-하나은행 협약 체결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보이스피싱의 사기건은 3만1,681건,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이하 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연금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통장은 전국 23개 금융기관서 개설이 가능하고 매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게 장점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관리자 청렴리더십 강화 우선"

LX 옴부즈퍼슨 정기회의

"관리자의 청렴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토대로 감사기능을 강화해 상호 견제를 해나간다면 더욱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8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제3회 LX옴부즈퍼슨 정기회의에서 안춘수 위원장이 한 말이다.

LX옴부즈퍼슨은 지난 3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대국민 소통을 위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다. LX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관리자의 부패위험도와 외부청렴도를 진단하고 있다.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국 청렴문화 확산 협의체 위원들과도 함께 한 이날 회의는 2021년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및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청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회의에서 여원찬 위원은 "LX공사는 현장업무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고객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며 "1~2분의 투자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행식 위원도 외부 청렴도를 높이려면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업무 기준절차에 수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측량지식을 토대로 업무처리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투명경영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위원님들의 제언을 수렴하여 LX공사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우리 동네 출하농가 온라인 교육 중

전북농협,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위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생산자가 곧 브랜드인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과정을 제작해 농가 조직화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각 농협들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단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기존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토양관리, PLS, 제품 상품화 요령, 로컬푸드 개념 등을 설명하는 기본교육과 토마토, 시인머스켓 같은 품목은 일부 고소득 작물에 대해 재배기술교육을 제작해 등재했다.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에 접속하면 로컬푸드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심 있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는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에 대한 교육 자료도 제작할 예정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시청·교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8월 전북수출 6억3181만 달러

전년대비 50.2% 증가

8월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2%가 증가한 6억3,181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수출 증가율은 제주(82.8%), 전남(54.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34.8%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29일 발표한 2021년 8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도내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2% 증가한 6억3,181만 달러, 수입은 57.3% 증가한 5억67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2,506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 살펴보면 동제품, 합성수지, 농기계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동제품($6,689만, 86.2%)에 이어 합성수지($5,687만, 69.3%), 정밀화학원료($3,802만, -3.7%), 자동차($3,542만, 2.9%), 농기계($3,301만, 9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선재봉강및철근($2,997만, 136.3%), 건설광산기계($2,865만, 36.7%)도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3,144만, 32.8%), 미국($1억529만, 68.0%), 일본($4,789만, 81.2%), 베트남($2,720만, 32.4%), 말레이시아($2,064만, 395.0%) 등 5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로 개인 정원관리 수요와 한국 농기계 인지도 상승 등으로 농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2,523만, 76.5%)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기기(주사기)의 일본 수출이 급증($1,225만)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영태 기자

eaT, 내년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

전국 초·중·고 80%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 이용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이 1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급식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공사)는 투명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과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eaT를 운영해 오고 있다.

eaT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해 이용학교가 2010년 119개교에서 2020년 기준 9465개교로 크게 증가했으며 수요기관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eaT의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처에 우리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9월경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공급업체 점검활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진원, 원산지관리사 수강생 3차 추가모집

전북 FTA활용지원센터(이하 FTA센터)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내달 15일까지 '3차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원산지 관련 업무 희망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원산지관리사 자격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고 수준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PASS를 개발·보급하고 FTA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FTA 협정 및 법령 △수출입통관 실무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 분류 실무 등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영태 기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개원 100주년』

■ 응급, 심·뇌혈관,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
■ 지역사회 감염 대비 안전한 병원체계 구축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심혈관센터 운영
◉ 진료내용 : 내과(순환기)
◉ 진료대상 :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
♣ 문의 063) 620-1114

지역응급의료센터
♣ 문의 063) 620-1119

건강증진센터
♣ 문의 063) 620-116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문의 063) 620-1650

장례식장
♣ 문의 063) 620-1140